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지식·태도 및 흡연경험과 가족환경과의 관련성

이경미·박재용·한창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The Dynamics among Smoking,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and Family Environment in Primary School Students

Kyung-Mi Lee, Jae-Yong Park and Chang-Hyun Ha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on smoking behavior, smoking knowledge and smoking attitude in primary school student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estionnaire-based examination was made with 1,476 sixth-grade students in Taegu from November 1st to 30th, 1998.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Out of 22 points for smoking knowledge, the male student group got 12.9 points, and the female student group 13.0 points. For both groups, students with better school achievement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p < 0.01$). For the female student group, those who had nonsmoking father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p < 0.05$).

A perfect score for smoking attitude was 20 points. The male student group received 14.9 points and the female student group 16.3. For both groups, the score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tudents who had better school achievement and no smoking experience. For the female group, the score was higher if they were living with widowed mothers or had nonsmoking parents.

The percentage of smoking experience was 22.0% for the male group and 4.7% for the female group. The present smoking percentage of both groups accounted for 0.3% and 0.1%, respectively. The percentage of the male group's smoking experience was significantly higher if school achievement was poor, if the mother has religious, and if her occupation belonged to significantly different category. For the female group, it was significantly higher if a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was less than the primary school level, or if a mother smokes.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were not significant variables for both groups.

The score for smoking knowledge according to family cohesion was highest if male and female members were in an enmeshed state. For the female group, the higher the family adaptability, the significantly higher the score for smoking knowledge. The score for smoking attitude according to family cohes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both groups. The family adaptability was not a significant variable for both group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cores for smoking knowledge and smoking attitude were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revealed that, for both groups, the better the school achievement. For the female group, the higher the family cohesion, the significantly higher the score ($p < 0.01$). For the male group, the score for smoking attitude was significantly higher if school

achievement was better, if students were living with a widowed mother or father, if they had drinking mothers, if family adaptability was low, if family cohesion was high, or if the score for smoking knowledge was high. For the female group, the score for smoking attitude was higher if school achievement was better. Also, if female student had nonsmoking fathers, if the family adaptability was lower, on the higher the score for smoking knowledge, a smoking attitude scored higher.

The results of a multiple logistic analysis, with smoking experience as a dependent variable, revealed that, for the male student group, the worse the school achievement, the higher the score for smoking knowledge, the lower the score for smoking attitude, or the lower the family adaptability,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smoking experience. For the female student group, the higher the score for smoking knowledge or the lower the score for smoking attitude,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smoking experience.

In conclusion, family environment, including smoking of parents and family functions, had a great effect on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and smoking experience of students, and it is required to adjust subjects and methods for smoking and nonsmoking education as smoking attitude and smoking behavior greatly differ according to sex.

I. 서 론

생활양식이란 '개인이 내리는 결정들로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들을 지칭한다. 이것은 환경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건강과 불건강에 미치는 생활양식의 기여도는 43%에 달한다고 한다(Dever, 1976).

19세기말에 이루려고 했던 가장 바람직한 생활 방식은 위생적인 생활이었다. 인류가 위생적인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각종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만성 비감염성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유전적으로 정해진 수명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 방식을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야만 한다(예방의학과 공중보건 편집위원회, 1996).

가족환경은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행동유형을 습득하는 최초의 사회환경(Miller와 Janosik, 1980)으로서 가족구성원간 개개인의 성장, 발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며, 인간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모두에 가족기능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규래 등, 1991). 행동양식의 하나인 흡연은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부모의 흡연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DHEW, 1985; 문화체육부, 1993)고 하였는데, 이영란 등(1991)은 남자 고등학교생의 흡연율

이 부모가 흡연하는 경우 47.3%, 부모가 흡연하지 않는 경우 32.0%로 부모의 흡연이 청소년의 흡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흡연은 예방 가능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왔는데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약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흡연율의 급속한 증가는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율은 1974년 2.7%에서 1986년 9.9%(김일순, 1992), 1994년 18.5%(박순영, 19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생의 흡연경험률은 김상영(1994)이 6학년생 대상으로 남학생이 12.0%, 여학생이 2.0%로 나왔고, 이상은 등(1995)은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에서 남학생이 11.2%, 여학생이 1.3%라고 하였으며, 박영규와 강윤주(1996)는 5학년에서 남학생이 9.8%, 여학생이 1.8%라 하였다.

흡연은 호흡기의 암성질환뿐만 아니라 상부위장관암, 요로계암, 췌장암 등 여러 가지 암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흡연에 의한 건강 위해 종류로는 심장질환, 암성질환, 폐질환, 임신부 흡연의 합병증, 위장 장애, 간접 흡연, 실내 공기 오염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하겠다(WHO, 1975; Mennis, 1983).

흡연을 조기에 시작할수록 건강상의 위해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15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9.0배, 15~19세 사이에 시작하는 경우는 14.4배나 높으며, 20세 이상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과 비교해서도 약 3배의 높은 폐암 사망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US Surgeon General, 1989). 또한 조기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심혈관질환 및 각종 암에 대한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며, 특히 아동기의 흡연 노출은 성인기로 이어지는 흡연 습관 형성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Hunter 등, 1986). 청소년기에 흡연을 하는 경우, 음주를 비롯한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두 배나 높고(김소야자 등, 1991; 문화체육부, 1993), 약물남용은 각종 청소년 범죄나 비행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이길홍 등, 1991), 담배에 의한 이런 유해성이 증명된 현재에도 오랜 기간동안 습관적으로 흡연한 사람은 흡연량과 흡연 기간의 증가로 금연이 어렵다고 한다(Hellmann 등, 1983).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보고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영국 황실의 의료진으로부터이며,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금연 운동의 시작은 1964년 미국의 보건총국의 보고서를 발표한 때부터라고 인정하고 있다(US Surgeon General, 1989). 그 이후로 미국의 경우 강력한 금연 운동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1년에 1~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생활 방식에서의 변화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연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1993년에 이르러 비로소 담배 소비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흡연율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청소년 흡연은 증가 추세에 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성장해 가는 단계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며 흡연 기간의 증가로 인하여 이 세대들이 50대에 이르렀을 때 담배로 인한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어(강복수 등, 1980) 조기에 적극적인 금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번 흡연을 배운 사람은 쉽게 끊지를 못하는 생활 습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때 습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초등학교 단계에서 예방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흡연은 하나의 습관으로서 그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습관 형성기인 아동기에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는 대부분 습관이 고착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의 흡연 예방 효과 분석 연구에서 교육 전·후에 흡연지식과 태도

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고 하며(김택민, 1991), 이것은 흡연과 금연 교육의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대부분의 생활양식과 습관이 아동기에 형성되며, 비교적 가족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흡연행동과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을 포함한 가족환경이 학생의 흡연지식, 태도 및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가족환경 요인과 흡연지식·태도·경험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 금연 교육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II. 대상 및 방법

대구광역시내 초등학교 6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전체 6학년 아동 1,5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응답한 1,476명(남자 800명, 여자 67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각 학교 양호교사를 사전 교육하여 199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부 및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의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무기명으로 하여 학생 자신의 응답을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 가족의 일반적 특성 7문항, 대상자의 흡연과 음주 행동 8문항, 가족의 흡연과 음주 행동 6문항, 가족 기능 20문항, 흡연지식 22문항, 흡연태도 20문항 등 총 8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들의 흡연경험 여부는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흡연경험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흡연비경험자로 하였다.

가족의 환경은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과 더불어 가족 구성, 부모 종교, 학력 직업, 부모의 흡연 여부, 부모의 음주 여부로 하였다.

가족적응력 및 가족결속력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Olson(1986)에 의해 고안되었고, 임중환 등(1990)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증명된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FACES III)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가족결속력이란 가족구성원의 가족내의 분산 및 연결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가족의 정서적 밀착성을 나타내며, 가족적응력은 가

족 체계의 변화 가능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이 상황 및 발전 스트레스에 대해 역할관계와 관계역할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며, 권력구조에 대한 체계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력과 결속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의 적응력이 10문항(적수 문항), 결속력이 10문항(홀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정도에 따라 거의 안 그렇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때때로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거의 항상 그렇다 5점으로 하여 50점 만점으로 하였다. 적응력은 경직된 상태(Rigid ; 10~19점), 구조화된 상태(Structured ; 20~24점), 유연한 상태(Flexible ; 25~28점), 혼란된 상태(Chaotic ; 29~50점)로 구분하였고, 결속력은 이탈된 상태(Disengaged ; 10~35점), 분리된 상태(Sepereated ; 36~40점), 연결된 상태(Connected ; 41~45점), 밀착된 상태(Enmeshed ; 46~50점)로 구분하였다.

대상자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표는 1982년 WHO의 흡연에 대한 조사 방법 회의에서 발간된 Guidelines for the conten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general population의 설문지를 강운주와 서성제(1995)가 번역, 수정·보완한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흡연지식은 22점, 흡연태도는 20점 만점으로 평점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여부, 흡연경험률은 빈도분석을 하여 비교하였고, 통계적 검정은 χ^2 검정을 하였으며, 흡연지식과 흡연태도는 t 또는 ANOVA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흡연지식과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시행하였고,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흡연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측정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III. 결 과

대상 남학생의 65.3%와 여학생의 72.4%가 자신의 성적이 중이라고 하였고, 남학생의 76.2%와 여학생의 80.8%는 종교가 있다고 하였고, 부모 모두 계신 경우가 남학생은 96.7%, 여학생은 95.5%였다. 남

학생의 경우 부와 모의 종교는 각각 64.6%, 78.5%에서 있다고 하였고, 여학생은 각각 70.4%, 79.9%였다. 부와 모의 학력은 고졸이 남학생의 경우 각각 45.2%, 58.2%, 여학생은 각각 48.3%, 59.5%로 높았고, 다음이 대졸이상이었다(표 1-1).

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단위 : 명(%)	
		남 학생	여 학생
성 적	상	189(23.6)	124(18.3)
	중	522(65.3)	489(72.4)
	하	89(11.1)	63(9.3)
종 교	있음	610(76.2)	546(80.8)
	없음	190(23.8)	130(19.2)
부모 유무	부모 계심	774(96.7)	645(95.5)
	편부	9(1.1)	9(1.3)
	편모	14(1.8)	21(3.1)
	부모 안 계심	3(0.4)	1(0.1)
부의 종교 ¹⁾	있음	517(64.6)	476(70.4)
	없음	266(33.3)	178(26.3)
모의 종교 ²⁾	있음	628(78.5)	540(79.9)
	없음	160(20.0)	126(18.6)
부의 학력 ¹⁾	초졸 이하	31(3.9)	22(3.3)
	중졸	82(10.3)	48(7.1)
	고졸	362(45.2)	327(48.3)
	대졸 이상	308(38.5)	257(38.0)
모의 학력 ²⁾	초졸 이하	50(6.3)	29(4.3)
	중졸	75(9.4)	97(14.3)
	고졸	466(58.2)	402(59.5)
	대졸 이상	197(24.6)	138(20.4)
계		800(100.0)	676(100.0)

주 : 1) 부가 없는 아동 39명(남자 17명, 여자 22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모가 없는 아동 22명(남자 12명, 여자 10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부의 직업은 남·여학생 모두 사무직이 각각 41.9%, 4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생산직이었다. 모의 직업은 남·여학생 각각 주부가 56.5%, 57.9%로 가장 높았다. 부가 음주하는 경우는 남·여학생 각각 75.5% 및 74.5%였고, 모가 음주하는 경우는 남·여학생 모두 22.7%씩이었다. 부가 흡연하는 경우가 남·여학생 각각 65.6% 및 67.4%였고, 모가 흡연하는 경우는 남·여학생 각각 0.6% 및 1.2%였다. 가족결속력은 남학생은 이탈된 상태 52.0%, 분리된 상태 31.6%, 연결된 상태 14.0%, 밀착된 상태 2.4%였고, 여학생은 각각 39.9%, 32.8%, 21.7%,

5.5%였다. 가족적응력 분포는 남학생은 경직된 상태 19.1%, 구조화된 상태 28.1%, 유연한 상태 24.6%, 혼란된 상태 28.1%였으며, 여학생은 각각 12.4%, 24.1%, 27.8%, 35.7%였다(표 1-2).

표 1-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단위 : 명(%)	
		남 학생	여 학생
부의 직업	사무직	335(41.9)	286(42.3)
	생산직	237(29.6)	208(30.8)
	기타	191(23.9)	151(22.3)
	무직	20(2.5)	9(1.3)
모의 직업	사무직	104(13.0)	116(17.2)
	생산직	131(16.4)	110(16.3)
	기타	101(12.6)	48(7.1)
	주부	452(56.5)	392(57.9)
부의 음주	마심	591(75.5)	487(74.5)
	안 마심	192(24.5)	167(25.5)
모의 음주	마심	179(22.7)	151(22.7)
	안 마심	609(77.3)	515(77.3)
부의 흡연	피움	514(65.6)	441(67.4)
	안 피움	269(34.4)	213(32.6)
모의 흡연	피움	5(0.6)	8(1.2)
	안 피움	783(99.4)	658(98.8)
가족결속력	이탈된 상태	416(52.0)	270(39.9)
	분리된 상태	253(31.6)	222(32.8)
	연결된 상태	112(14.0)	147(21.7)
	밀착된 상태	19(2.4)	37(5.5)
가족적응력	경직된 상태	153(19.1)	84(12.4)
	구조화된 상태	225(28.1)	163(24.1)
	유연한 상태	197(24.6)	188(27.8)
	혼란된 상태	225(28.1)	241(35.7)
계		800(100.0)	676(100.0)

대상자의 흡연지식 점수는 22점 만점에 남학생이 12.9점, 여학생은 13.0점으로 거의 비슷하였다. 남학생은 성적이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적이 상인 경우 14.5점으로 가장 높았다.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 모두 있을 경우, 부모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흡연을 안하는 경우에 흡연지식 점수가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학생은 성적이 높을수록, 부가 흡연을 안하는 경우에 흡연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그러나 흡연 경험, 부모 유무, 부모의 음주 여부 및 모의 흡연과 흡연 지식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흡연태도 점수는 20점 만점에 남학생이

14.9점, 여학생이 16.3점으로 여학생이 높았다. 남학생은 성적, 흡연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즉, 성적이 상인 경우가 15.7점,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가 1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편부인 경우, 부가 음주 안하는 경우, 모가 음주하는 경우, 부모가 흡연을 안하는 경우에 흡연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여학생은 성적, 흡연 경험, 모의 흡연 여부, 부모 유무, 부의 흡연 여부에 따라 흡연태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적이 상인 경우 17.1점,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 16.4점, 모가 흡연을 안하는 경우가 16.3점, 편모일 경우 16.9점, 부가 흡연을 안하는 경우가 16.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2).

표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별 흡연지식 및 흡연태도 점수
단위 : 평균±표준편차

		흡연지식 점수		흡연태도 점수	
		남 학생	여 학생	남 학생	여 학생
성 적	상	14.49±4.42**	13.85±4.14**	15.65±3.64**	17.12±2.63**
	중	12.37±4.98	13.09±4.33	14.80±4.05	16.28±2.74
	하	12.63±4.41	10.87±4.58	13.58±4.01	14.54±3.96
흡연 경험	있음	13.10±4.56	12.94±4.68	12.90±4.66**	13.50±4.75**
	없음	12.84±4.95	13.03±4.36	15.42±3.60	16.41±2.73
부모 유무	부모 계심	12.92±4.91	13.01±4.37	14.86±3.97	16.30±2.89*
	편부	11.89±3.72	12.22±3.99	15.56±2.30	13.33±4.64
	편모	12.64±3.25	13.81±4.74	15.50±4.96	16.86±2.26
	부모 안계심	12.67±4.04	10.00±0.00	10.33±6.81	14.00±0.00
부의 음주	마심	12.74±4.90	13.03±4.27	14.72±4.01	16.19±2.95
	안 마심	13.41±4.86	12.91±4.66	15.31±3.77	16.44±2.90
모의 음주	마심	12.80±5.03	12.96±4.29	15.19±3.88	15.96±3.17
	안 마심	12.94±4.84	13.06±4.42	14.78±4.02	16.42±2.78
부의 흡연	피움	12.68±4.78	12.95±4.33**	14.80±3.79	16.09±3.03*
	안 피움	13.33±5.10	13.12±4.35	15.00±4.27	16.59±2.70
모의 흡연	피움	12.40±2.50	14.25±3.06	14.40±4.34	16.00±2.57**
	안 피움	12.92±4.89	13.02±4.39	14.87±3.98	16.32±2.85
계		12.90±4.87	13.02±4.38	14.86±3.99	16.27±2.92

**p<0.01

주 1) 부가 없는 아동 39명(남자 17명, 여자 22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모가 없는 아동 22명(남자 12명, 여자 10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대상자의 흡연율은 남학생의 경우 현재 흡연율이 0.3%, 과거 흡연율이 21.7%로서 총 22.0%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현재 흡연율이 0.1%, 과거 흡연율이 4.6%로 총 4.7%였다(표 3).

표 3. 대상자의 성별 흡연 여부

단위 : 명(%)

	현재 흡연	과거 흡연	흡연경험 없음	계
남학생	2(0.3)	174(21.7)	624(78.0)	800(100.0)
여학생	1(0.1)	31(4.6)	644(95.3)	676(100.0)
계	3(0.2)	205(13.9)	1,268(85.9)	1,476(100.0)

남학생의 흡연경험률은 성적이 하인 경우 39.3%, 상인 경우는 17.5%로 성적이 나쁠수록 흡연경험률이 높았으며($p < 0.01$), 종교가 있는 경우 22.9%로 높았으나, 종교에 따라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그리고 부모가 없을 경우 흡연경험률이 66.7%로 부모가 있는 경우의 22.0%보다 높았으나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은 종교가 있는 경우 5.5%, 성적이 하인 경우 9.5%, 편부인 경우 22.2%가 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4).

표 4. 대상자의 종교, 성적 및 부모 유무에 따른 성별 흡연 경험률

단위 : %

		남학생	여학생
종교	있음	22.9	5.5
	없음	18.9	1.5
성적	상	17.5**	5.6
	중	20.7	3.9
	하	39.3	9.5
부모유무	부모 계심	22.0	4.3
	편부	-	22.2
	편모	28.6	9.5
	부모 안 계심	66.7	-
계		22.0	4.7

** $p < 0.01$

대상자의 부모 특성에 따른 흡연경험률은 남학생은 모의 종교가 있는 경우가 24.4%로 없는 경우의 13.1%보다 높았고($p < 0.01$), 모의 직업이 기타인 경우가 30.7%, 사무직이 16.3%로 차이가 있었다($p < 0.05$). 부의 종교가 있을 경우가 23.0%, 부와 모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 각각 25.6%, 24.0%, 부가 무직인 경우 30.0%, 부와 모가 음주할 경우 각각

22.5%, 22.9%로 흡연경험률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여학생은 모의 학력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졸 이하일 때 13.8%로 가장 높았다. 부와 모의 종교가 있는 경우는 각각 5.3%, 4.8%로 없는 경우보다 높았고,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부가 무직인 경우, 모의 직업이 생산직인 경우, 부가 음주 안할 경우, 모가 음주하는 경우에서 흡연경험률이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5).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흡연경험률은 여학생의 경우 모가 흡연할 경우 12.5%, 흡연하지 않는 경우 4.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부가 흡연할 경우 남학생 21.8%, 여학생 5.0%로 부가 흡연하지 않을 경우의 21.6%와 3.8%보다 높았고, 남학생은 모가 흡연할 경우 40.0%로 모가 흡연하지 않을 경우의 22.0%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6).

표 5. 대상자의 부모 특성에 따른 성별 흡연경험률

단위 : %

		남 학생	여 학생
부의 종교	있음	23.0	5.3
	없음	19.2	2.8
부의 학력	초졸 이하	16.1	4.5
	중졸	25.6	2.1
	고졸	23.8	4.6
	대졸 이상	18.8	5.1
부의 직업	사무직	21.5	4.5
	생산직	22.8	6.3
	기타	19.9	2.0
무직	30.0	11.1	
	부의 음주	마심	22.5
	안 마심	19.3	6.6
모의 종교	있음	24.4**	4.8
	없음	13.1	3.2
모의 학력	초졸 이하	20.0	13.8*
	중졸	24.0	5.2
	고졸	22.1	3.2
	대졸 이상	21.8	5.8
모의 직업	사무직	16.3*	3.4
	생산직	27.5	7.3
	기타	30.7	6.3
	주부	19.9	3.8
모의 음주	마심	22.9	4.6
	안 마심	21.8	4.5
계		22.0	4.7

* $p < 0.05$, ** $p < 0.01$

가족결속력에 따른 흡연경험률은 남학생의 경우 이탈된 상태일 때 24.8%로 가장 높았고 밀착된 상태일 때 10.5%로 가장 낮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밀착된 상태일 때가 8.1%로 가장 높았고, 분리된 상태일 때 4.1%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적응력에 따른 흡연경험률은 남학생은 경직된 상태일 때 26.1%로 가장 높았고 혼란된 상태일 때 16.9%로 가장 낮았으며, 여학생은 경직된 상태일 때 7.1%로 가장 높았고, 유연한 상태일 때가 3.2%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7).

대상자의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에 따른 흡연지식 점수는 남·여 모두 가족결속력이 밀착된 상태일 때 15.0점, 1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탈된 상태일 때 가장 낮았고, 여학생의 경우 가족적응력이 높을수록 흡연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져 혼란된 상태일 때 13.6점으로 가장 높았다($p<0.01$). 남학생은 가족적응력에 따른 흡연지식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6. 부모의 흡연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성별 흡연경험률

		단위 : %	
		남 학생	여 학생
부	피움	21.8	5.0
	안 피움	21.6	3.8
모	피움	40.0	12.5**
	안 피움	22.0	4.4

** $p<0.01$

표 8. 대상자의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에 따른 흡연지식 및 흡연태도 점수

(단위 : 평균±표준편차)

		흡연지식 점수		흡연태도 점수	
		남 학생	여 학생	남 학생	여 학생
가족결속력	이탈된 상태	12.44±4.96**	12.14±4.60**	14.44±4.05**	15.77±3.01**
	분리된 상태	13.56±4.57	13.42±3.98	15.09±3.99	16.53±2.92
	연결된 상태	12.77±4.96	13.59±4.25	15.96±3.51	16.63±2.65
	밀착된 상태	14.95±5.02	14.78±4.38	14.74±4.40	16.95±2.84
가족적응력	경직된 상태	12.65±5.07	11.93±4.96**	14.84±4.02	16.29±2.89
	구조화된 상태	13.04±4.62	12.53±4.22	15.03±3.94	15.98±3.00
	유연한 상태	12.30±4.87	13.14±4.26	14.86±3.70	16.32±2.80
	혼란된 상태	13.46±4.92	13.64±4.26	14.71±4.28	16.42±2.97
계		12.90±4.87	13.02±4.38	14.86±3.99	16.27±2.92

** $p<0.01$

표 7. 대상자의 가족결속력 및 가족적응력 분포 및 이에 따른 흡연경험률

		단위 : %	
		남 학생	여 학생
가족결속력	이탈된 상태	24.8	4.8
	분리된 상태	19.0	4.1
	연결된 상태	20.5	4.8
	밀착된 상태	10.5	8.1
가족적응력	경직된 상태	26.1	7.1
	구조화된 상태	25.3	4.3
	유연한 상태	20.8	3.2
	혼란된 상태	16.9	5.4
계		22.0	4.7

대상자의 가족결속력에 따른 흡연태도 점수는 남·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1$), 남학생은 연결된 상태일 때 16.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밀착된 상태일 때 17.0점이었으며,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흡연태도 점수가 높았다. 가족적응력은 남자는 구조화된 상태일 때 1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혼란된 상태일 때 16.4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8).

흡연지식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회귀분석에서 흡연지식 점수는 남·여 모두 성적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표 9).

흡연태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흡연태도 점수는 남학생은 성적이 높을수록, 편부·편모일수록, 모가 음주할수록,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낮을수록, 흡연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은 성적이 높을수록, 부가 흡연 안 할수록, 가족적응력이 낮을수록, 흡연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10).

흡연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분석결과, 남학생은 성적이 낮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낮을수록, 흡연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흡연경험을 많이 했으며, 여학생은 흡연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흡연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9. 흡연지식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회귀분석

독립변수 ¹⁾	남 학생		여 학생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학생 종교	0.0293	0.0026	0.2535	0.0228
성적	1.0918	0.1293**	1.0045	0.1190**
편부, 편모/없다	-0.2820	-0.0097	3.5297	0.1662
부모/없다	0.4013	0.0146	2.8635	0.1370
부음주 여부	-0.5469	-0.0494	0.2170	0.0223
모음주 여부	0.0912	0.0078	-0.3280	-0.0312
부흡연 여부	-0.4438	-0.0437	-0.1636	-0.0178
모흡연 여부	0.2528	0.0041	0.8879	0.0220
모흡연 여부	0.0065	0.0088	0.0898	0.1306**
가족결속력	0.0353	0.0473	0.0544	0.0744
	상수 = 9.8540** 수정된 R2 = 0.1648 F값 = 2.33897*		상수 = 3.1292 수정된 R2 = 0.0578 F값 = 4.0755**	

* p<0.05, ** p<0.01

주 : 1) 학생종교(없다=0, 있다=1), 성적(하=1, 중=2, 상=3), 부모[(편부, 편모/없다 : 없다=0, 편부편모=1), (부모/없다 : 없다=0, 부모=1)], 부음주(안한다=0, 한다=1), 모음주(안한다=0, 한다=1), 부흡연(안한다=0, 한다=1), 모흡연(안한다=0, 한다=1), 가족결속력(실점수), 가족적응력(실점수)

표 10. 흡연태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회귀분석

독립변수 ¹⁾	남 학생		여 학생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학생 종교	-0.1026	-0.0109	-0.3864	-0.0522
성적	0.4950	0.0715*	0.7609	0.1351**
편부, 편모/없다	4.7506	0.1989*	1.7256	0.1218
부모/없다	3.8490	0.1710	2.3526	0.1687
부음주 여부	-0.4436	-0.0488	-0.2277	-0.0350
모음주 여부	0.6320	0.0660*	-0.3888	-0.0555
부흡연 여부	0.1067	0.0128	-0.4227	-0.0690*
모흡연 여부	-0.3817	-0.0075	-0.2852	-0.0106
가족결속력	0.1022	0.1681**	0.0320	0.0698
가족적응력	-0.0822	-0.1341**	-0.0393	0.0805*
흡연지식 점수	0.2803	0.3416**	0.2857	0.4282**
	상수 = 5.1102* 수정된 R2=0.1556 F값 = 14.3885**		상수=9.3623** 수정된 R2=0.2313 F값 = 19.4588**	

* p<0.05, ** p<0.01

주 : 1) 학생종교(없다=0, 있다=1), 성적(하=1, 중=2, 상=3), 부모[(편부, 편모/없다:없다=0, 편부편모=1), (부모/없다:없다=0, 부모=1)], 부음주(안한다=0, 한다=1), 모음주(안한다=0, 한다=1), 부흡연(안한다=0, 한다=1), 모흡연(안한다=0, 한다=1), 가족결속력(실점수), 가족적응력(실점수), 흡연지식 점수(실점수)

표 11. 흡연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분석

독립변수 ¹⁾	남 학생		여 학생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 종교	0.2503	0.2198	1.1897	0.7580
성적	-0.4440**	0.1676	0.0363	0.3875
편부,편모/없다	-1.7350	1.4851	6.1357	36.6676
부모/없다	-1.3183	1.3844	5.1008	36.6627
부음주 여부	0.0629	0.2260	-0.5920	0.4318
모음주 여부	0.1662	0.2191	-0.2028	0.5029
부흡연 여부	-0.0637	0.1982	0.2195	0.4375
모흡연 여부	0.7247	1.0422	0.1649	1.3583
가족결속력	0.0077	0.0168	0.0574	0.0366
가족적응력	-0.0329*	0.0168	-0.0271	0.0360
흡연지식	0.0803**	0.0213	0.1147*	0.0521
흡연태도	-0.1768**	0.0243	-0.3247**	0.0639
	$\chi^2 = 79.982(p=0.0000)$		$\chi^2 = 40.027(p=0.0001)$	

* p<0.05, ** p<0.01

주 : 1) 흡연경험(없다=0, 있다=1), 학생종교(없다=0, 있다=1), 성적(하=1, 중=2, 상=3), 부모[편부,편모/없다:없다=0, 편부편모=1], (부모/없다:없다=0, 부모=1)], 부음주(안한다=0, 한다=1), 모음주(안한다=0, 한다=1), 부흡연(안한다=0, 한다=1), 모흡연(안한다=0, 한다=1), 가족결속력(실점수), 가족적응력(실점수), 흡연지식(실점수), 흡연태도(실점수)

IV. 고 찰

금연 운동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보건교육을 통하여 흡연이라는 습관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흡연이 질병의 이환율이나 각종 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전체 흡연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인데 여성과 청소년 흡연은 증가 추세에 있어(이길홍, 1988), 어린이들의 흡연지식·태도·경험 및 관련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흡연 및 금연 교육의 기본 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흡연지식 점수는 남학생이 12.9점, 여학생이 13.0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높았는데, 박영규와 강윤주(199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11.5점으로 여학생의 10.9점보다 약간 높았다. 성적이 상인 경우에 남학생은 14.5점, 여학생은 13.9점으로 가장 높아 성적과 흡연지식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박영규와 강윤주(1996)의 연구에서 흡연지식 수준과 아버지의 흡연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태도 점수는 남학생이 14.9점, 여학생은 16.3점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박영규와 강윤주(1996), 강윤주와 서성제(1995)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남·여 모두 성적이 높을수록, 흡연경험이 없을수록 흡연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현재의 학업 성적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이 흡연에 대한 지식 또한 높으며,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바람직한 흡연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편모일 때, 부모가 흡연을 안할 때 흡연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의 흡연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규와 강윤주(1996)의 연구에서도 흡연경험, 부모의 흡연과 흡연태도 점수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흡연경험률은 남학생은 22.0%, 여학생은 4.7%로서 김상영(1994)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학생 12.0%, 여학생 2.0%, 강윤주와 서성제(1995)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학생 13.4%, 여학생 2.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0.3%, 여학생 0.1%로 김상영

(1994)의 연구결과인 남학생 10.5%, 여학생 0.8%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흡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호기심으로 인해 대개는 한·두번의 흡연경험으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을 시도하는 행위가 장래 흡연으로 가는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보고(Murphy와 Price, 1988)와 임용 등(1992)이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초 흡연경험시 연령이 13세 이하일 때가 20.5%이며, 최초 흡연경험 연령이 낮을수록 습관성 흡연군으로 고착된다고 한 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 호기심으로 인한 단편적인 흡연행동도 주목해야 할 행동이라 하겠다.

흡연경험은 종교에 따라 흡연을 금기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조사하였는데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남학생은 성적이 낮을수록 흡연경험률이 높았는데, 이것은 김상영(1994), 정래순 등(1996), 이영란 등(1991), 정연강과 장영미(1994), 김정남(1997)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대변해 주고 있는 성적에 대한 성취감이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부모가 계실 때보다 편부, 편모일 때 또는 안 계실 경우에 흡연율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김상영(1994)과 이영란 등(1991)의 연구결과에서는 결손 가정에서 흡연 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남학생은 모의 종교가 있을 때, 모의 직업이 기타일 때, 그리고 여학생은 모의 학력이 초졸 이하일 때, 모가 흡연할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는데, 박영규와 강윤주(1996)의 연구에서도 모의 흡연, 모의 교육수준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고, 정래순 등(1996)의 연구 결과에서도 모의 흡연이 여학생의 흡연율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아동들이 아버지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흡연경험률은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적응력에 따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흡연 경험률은 가족결속력이 이탈된 상태(24.8%)일 때 가장 높고, 밀착된 상태(10.5%)일 때 가장 낮고, 가족적응력은 경직된 상태(26.1%)일 때 가장 높았고, 혼란된 상태(16.9%)일 때 가장 낮았다. 여학생은 가족

결속력이 밀착된 상태(8.1%), 가족적응력이 경직된 상태(7.1%)일 때 가장 높아서 가족 기능이 극단일 때 아동들의 흡연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래순 등(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기능 지수가 낮은 경우 흡연자가 많았고, 정연강과 장영미(1994)가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정분위기가 화목하고 온화하지 않을수록, 부모-자녀간에 친밀성이 없고 의견존중도가 낮을수록 흡연경험률이 증가한다 하였고, 임용 등(1992)의 연구 결과에서도 건강한 가족 기능군에 비해 중증의 가족 기능 장애군의 흡연율이 유의하게 높아 가족 기능과 흡연과의 관련성을 보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희 등(1997)의 연구에서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건강 행위 점수가 높아,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 그리고 부모간의 화목도 등의 가족환경이 건강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가족결속력이나 적응력과 흡연경험률과의 관련성이 미약하게 나온 것은 중·고등학생과는 달리 아직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의존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모델 기능이 약화됨과 동시에 학생들의 사회 활동 증가 즉,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사교육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가족의 결속력과 흡연지식, 흡연태도 점수와는 남녀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는데, 흡연지식 점수는 가족결속력이 밀착된 상태일 때 가장 높았고, 흡연태도 점수는 남학생은 연결된 상태일 때, 여학생은 밀착된 상태일 때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은 가족적응력이 높을수록 흡연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족적응력과 흡연태도 점수는 남·여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는데, 가족이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어 부모와 자녀간에 대화시간이 증가함으로써 부모로부터 흡연지식을 많이 습득하게 되고, 지식의 증가는 바람직한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흡연지식 점수는 남·여 모두 성적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흡연지식 점수가 높았다. 흡연태도 점수는 남학생은 성적이 높을수록, 편부·편모일수록, 모가 음주

할수록,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낮을수록, 흡연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은 성적이 높을수록, 부가 흡연 안 할수록, 가족적응력이 낮을수록, 흡연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태도 점수가 높았다. 박영규와 강윤주(1996)의 연구에서도 흡연태도 수준이 부가 흡연을 안하는 경우, 흡연지식 수준이 높은 경우에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흡연지식과는 달리 흡연태도는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게 되며, 나아가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중 로지스틱 분석 결과 남학생은 성적이 낮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낮을수록 흡연경험률이 높았으며, 남·여 모두 흡연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흡연경험률이 높았고, 박영규와 강윤주(1996)의 연구 결과에서도 흡연지식점수가 높을 때, 흡연태도 점수가 낮을 때 흡연경험률이 높았다. 반면 박영규와 강윤주(1996)의 연구 결과에서 모가 흡연하는 경우 흡연경험률이 높아 본 연구와 상반되었는데 그것은 모의 흡연율이 남학생의 경우 0.6%, 여학생의 경우 1.2%로 너무 낮아 대상자수가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흡연경험은 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흡연을 경험한 아동들은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흡연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수준은 낮았으나 지식 수준은 높았다. 즉, 흡연의 생리적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어린이들의 흡연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흡연을 자제하고, 가족의 적응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학업성적에 관심을 갖도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1,476명의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현재 흡연자가 남·여 모두 3명에 불과하여 현재 흡연율을 요인별로 분석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흡연경험률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호기심으로 한·두번 흡연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흡연에 관한 현상을 파악하는데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

래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흡연과 관련성을 연구 할 경우 대상자수를 크게 늘려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가족환경이 초등학교생의 흡연지식, 태도 및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구광역시내 초등학교 6개교, 6학년 학생 1,4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흡연지식 점수는 22점 만점에 남학생 12.9점, 여학생 13.0점으로 여자가 약간 높았다. 남·여 모두 성적이 높을수록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여학생은 부가 흡연하지 않는 군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흡연태도 점수는 20점 만점에 남학생 14.9점, 여학생 16.3점으로 여학생이 높았고, 남·여 모두 성적이 높을수록,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은 편모일 경우, 부와 모가 흡연을 안 할 경우에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흡연경험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7%였지만,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0.3%, 여학생 0.1%였다. 흡연경험률은 남학생은 성적이 낮을수록, 모의 종교가 있을 경우, 모의 직업이 기타일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은 모의 학력이 초졸 이하일 때, 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은 남·여 모두에서 흡연경험률에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가족결속력에 따른 흡연지식 점수는 남·여 모두 밀착된 상태일 때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은 가족적응력이 높을수록 흡연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결속력에 따른 흡연태도 점수는 남·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족적응력은 남·여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흡연지식 및 태도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흡연지식 점수는 남·여 모두 성적이 높을수록, 여학생의 경우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흡연태도 점수는 남학생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편부·편모일수록, 모가 음주할수록,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낮을수

록, 흡연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성적이 높을수록, 부가 흡연 안 할수록, 가족적응력이 낮을수록, 흡연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태도 점수가 높았다.

흡연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회귀 분석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성적이 낮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낮을수록, 흡연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는 흡연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흡연경험을 많이 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흡연과 가족기능을 포함한 가족환경이 학생들의 흡연지식·태도·경험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성에 따라 흡연태도와 흡연경험이 크게 다르므로 흡연과 금연 교육시 대상과 방법면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강복수, 예민해, 이성관 : 대구 지방 일부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 경북대학교 의대잡지, 21(2) : 604-608, 1980.
2. 강윤주, 서성제 :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 개입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8(1) : 133-142, 1995.
3. 김상영 : 농어촌과 중소도시 국민학교 6년생의 흡연 실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94, 쪽 1-23.
4.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 :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 간호학회지 23(3) : 487-503, 1993.
5. 김은희, 박재용, 차병준, 감신 : 중학생의 건강행위와 가족환경과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0(1):87-97, 1997.
6. 김일순 : 여성 및 청소년 흡연의 문제와 대책. 보건주보, 제853호, 1992.
7. 김정남 : 대구 시내 고등학교 학생의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7, 쪽 6-46.
8. 김택민 : 고교생들의 금연교육 효과 분석. 한국역학회지, 14(2) : 116-127, 1992.
9. 문화체육부 :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지도서. 한국청소년학회, 1993, 쪽 10-27.
10. 박순영 : 한국인 중·고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연구, 학교보건학회지, 7(1) : 57-71, 1994.
11. 박영규, 강윤주 : 학동기 아동의 흡연행동 및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 가정의학회지, 17(9):798-809, 1996.
12.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편집위원회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계축문화사, 서울, 1996, 쪽 562-563, 875.
13. 이규래, 임종한, 오미경, 이혜리, 윤방부 : 정신 질환 가족과 정상 가족의 가족 기능 비교 연구. 가정의학회지, 12(1) : 30-35, 1991.
14. 이길홍, 박두병, 나철, 이재광, 기백석, 이재우, 유영식, 이영식, 이현재 : 범법 정신장애자와 일반 정신장애자의 약물 사용 양상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의과학, 23(1) : 82-110, 1991.
15. 이길홍 :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울, 1988.
16. 이상은, 고복자, 강윤주 :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생들의 음주,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실태에 대한 연구. 서울시 학교보건원 연보, 1995.
17. 이영란, 김현자, 이고봉, 이병철, 최상모 : 흡연과 가족기능지수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서울시내 일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학회지, 12(5) : 38-46, 1991.
18. 임웅, 김광휘, 박월미, 이홍수 : 고교생 흡연실태 및 가족기능 지수와 흡연과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13(7) : 592-601, 1992.
19. 임종한, 이규래, 오미경, 광기우, 이혜리, 윤방부 : 가족적응력, 결속력 평가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1(11) : 8-28, 1990.
20. 정래순, 피승용, 강윤주, 이상현, 윤방부 :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흡연 실태 및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조사. 가정의학회지, 17(6) : 425-437, 1996.
21. 정영강, 장영미 : 학교보건간호를 통한 금연 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학교보건학회지, 7(2) : 135-143, 1994.
22. Alan Dever : An epidemiological model for health policy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 1976, p. 455.
23.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Smoking and health. Public Health Service Publication, Washington, D.C., 1985, p. 1103.
24. Hellmann RO, Chirmpfhauser FT, Kunz ML : Self initiated smoking cessation in college students. J AM College Health, 32 : 95-100, 1983.
25. Hunter SM, Croft JB, Parker FC : Biobehavioral studies in cardiovascular risk development. in Causation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children, ed, Berenson GS, New York:Raven Press, 1986, pp. 223-253.
26. Mennis JF : Smoking : The physiologic effects, Am J of Nursing, 73 : 1143-1146, 1983.
27. Miller JR, Janosik EH : Family to cused care. McGraw Hill, New York, 1980, pp. 5-15.
28. Murphy NT, Price CJ : The Influence of self-esteem. parental smoking and living in a tobacco production region on adolescent smoking behaviors. J Sch Health, 58(10) : 401-405, 1988.
29. Olson DH : Circumplex Model VII : Validation Studies and FACESIII. Fam Process, 25(3):337-351, 1986.
30. US Surgeon General : Reduc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25years of progress(Monograph). Washington, D.C., 1989, p. 303.
31. WHO :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population. Report of a WHO meeting held in Helsinki, Finland, 1982.